

# 『東醫寶鑑』에 인용된 張從正의 醫論 研究

경희대학교 의사학교실 김의태 · 김남일

## Research of medical essay by Jang Jong-jung, quoted in 『Donguibogam』

Kim Eui-tai · Kim Nam-il

This research is an analysis of medical essay article 62 by Jang Jong-jung that is quoted in 『Donguibogam』. The opinion through out the essay is that the way of healing on the whole is eliminating the origin of illness above all. Three methods of sweating, vomiting, and purging that Jang applied are profoundly connected to this opinion. Non-medicinal treatment of emotion disorders that is quoted in 『Donguibogam』 is also closely related. The consideration of Unqi(circulating qi) as the best way of searching etiological factor, pathology, and treatment, in 『Donguibogam』 is close to the view of medical essay by Jang Jong-jung.

---

### 1. 서론

『東醫寶鑑』은 조선 중기에 御醫였던 許浚(1539~1615)이 宣祖의 명령을 받아 14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한 백과사전적 성격의 綜合醫書이다. 모두 2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의 어떤 醫書에서 이룩하지 못한 업적을 이루어 냈다고 할 만 하다. 먼저, 內景, 外形, 雜病, 湯液, 鍼灸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체계는 다분히 양생을 으뜸으로 하는 예방의학적 의료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성체계는 질병의 병명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전의 醫書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체계이다. 許浚은 이와 같은 전혀 생소한 체계로 의서를 구성하여 자신의 의학사상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는 『東醫寶鑑』 속에 보이는 張從正(1156~1228)의 醫論을 분석하여 『東醫寶鑑』이 張從正의 醫論을 어떻게 수용하여 이론체계의 구성에 영향을 받았는가를 밝히는 데에 있다.

張從正은 睢州考城(지금의 河南省 蘭考)사람으로 字는 子和이다. 그는 吐汗下 三法으로 사기를 몰아내는 치료법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후세인들을 그를 “攻下派”의 창시자라고 불렀다. 그의 저술인 『儒門事親』은 그가 草稿를 쓰고 麻知幾와 常仲明의 수정과 보충을 거쳐 완성된 것이다. 그는 많은 종류의 질병을 風寒暑濕燥火 등 發病因素별로 六門으로 나누어 치료시에 吐汗下三法을 위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張從正의 학설의 주요내용을 “三法六門”이라 부르기도 한다. 張從正의 학설이 형성되게 된 데에는, 첫째, 당시의 의학계에 溫補를 좋아하는 경향, 둘째, 당시에 접촉했던 환자가 대부분 貧苦한 대중들로 그 질병의 속성이 實證, 熱證이 많았다는 것, 셋째, 劉河間의 火熱學說의 영향 등이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張從正의 학설의 주요원칙은, 첫째, “무릇 病이란 원래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혹 밖에서 들어오거나 혹은 속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모두 邪氣로 되는 것이다. 邪氣가 몸에 침범한 것을 빨리 공격하거나 빨리 없애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 邪氣를 잡아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다.”<sup>1)</sup>

둘째, 上에 있는 사기는 吐法, 表에 있는 사기는 汗法, 下에 있는 사기는 下法을 사용한다. 셋째, 吐汗下三法은 모두 禁忌證이 있으므로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 2. 『東醫寶鑑』에 인용된 張從正의 醫論 분석.

『東醫寶鑑』은 張從正의 醫論을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등 전편에 걸쳐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다. 張從正의 醫論이 인용된 條文을 살펴보면, 「子和」가 인용된 조문 59개, 「儒門事親」이 인용된 조문 1개, 「戴人」이 인용된 조문 2개, 이를 합산하면 62개의 조문이 된다. 즉 『東醫寶鑑』에 張從正의 醫論이 인용된 조문은 62개이다. 한편 『東醫寶鑑』에는 「子和」라는 단어가 69회, 「儒門事親」 1회, 「戴人」 24회 나타나고 있다. 즉 『東醫寶鑑』에는 총94회에 걸쳐 張從正을 지칭하는 단어들 등장한다.

『東醫寶鑑』편재에 따른 인용은 內景篇에서 22개의 조문에서, 外形篇에서는 20개,

1) “夫病之一物非人身素有之也, 或自外而入, 或由內而生 皆邪氣也. 邪氣加諸身 速攻之可也, 速去之可也. 攬而留之雖愚夫愚婦皆知其不可也.” (『儒門事親』 卷二 汗下吐三法該盡治病證十三)

雜病篇에서는 20개의 조문에서 張從正의 醫論을 인용하고 있다.

인용된 張從正의 醫論을 분석하여 보면 吐汗下 三法에 대한 인용이 많은 데 三法은 각각 독자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三法의 사용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인용출처가 <子和> 인 조문	다른 인용출처중 <子 和>인 조문	對人曰	인용출처가<儒門事親>인 조문
內景篇	15	5	10	1
外形篇	18	1	5	0
雜病篇	16	2	5	0
湯液·鍼灸	0	0	0	0
합계	49	8	20	1

도표1. 『東醫寶鑑』에서 張從正 醫論 인용횟수 분석

	東醫寶鑑 인용 조문 수			사용 빈도 수		
	子和	戴人	儒門事親	子和	戴人	儒門事親
內景篇	21	10	1	22	11	1
外形篇	19	5	0	26	7	0
雜病篇	17	5	0	22	6	0
湯液·鍼灸	0	0	0	0	0	0
합계	57	20	1	70	24	1

도표2. 『東醫寶鑑』에서 張從正 醫論 인용형식 분석

『東醫寶鑑』에서는 張從正의 醫論 인용문 중에서 三法외에도 질병의 기전을 설명한 조문이 16개이며, 情志를 다스려 질병을 治療한 조문이 6개, 사혈법으로 질병을 治療한 조문이 3개 이다. 그 외로는 清熱去濕의 法으로 膿血痢를 치료한 조문, 中消에 人蔘散을 사용한 조문, 점안액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한 조문 등이 있다.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針灸·湯液編	총계
汗法	4	2	2	0	8
吐法	6	6	8	0	20
下法	8	9	3	0	20
汗下法	1	0	1	0	2
吐下法	3	2	0	0	5
吐汗下	1	2	0	0	3
瀉血法	0	2	1	0	3
外用藥	0	1	0	0	1
情志	5	1	0	0	6

도표 3. 치료 양식(吐汗下, 瀉血 등)에 따른 분포 도표.

### 3. “治病先去根”論

“治病先去根”은 『東醫寶鑑·雜病用藥』에 나오는 조문 제목이다. 그 내용은 “病을 다스리는 법이 먼저 病의 根源을 除去한 뒤에 收澁하는 藥을 쓰는 법이니 마치 옷을 씻는데 먼저 때를 씻은 뒤에 분을 바르는 법과 같다.(『丹心』) 張載人이 가로되 養生하는 법과 질병을 攻略하는 법이 본래 서로 같지 않은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補劑로써 病을 治療하니 效果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綱目』)”<sup>2)</sup>이다. 이 말은 張從正 자신의 말이거나 張從正의 의학사상을 받아들인 『醫學綱目』(樓英: 1320~1389)의 말을 써놓고 여기에 제목을 붙인 것이다. 아마도 이 말만큼 모든 질병의 원인을 邪氣로 정의하고 있는 張從正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는 문장은 없을 것이다.

邪氣를 몰아내는 것이 치료의 우선이라는 주장은 금원시대 張從正을 대표하는 의학사상이다. 張從正(1156~1228)은 『內經』 『傷寒論』 등 경전을 연구하고 여기에 劉完素의 학술사상을 공부하여 사기를 몰아내는 것이 정기를 보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素問·評熱病論』의 “邪가 이르는 것은 正氣가 반드시 虛하기 때문이다.”<sup>3)</sup>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吐汗下三法을 중심으로 치료체계를 만들어내었다. 허준은 『東醫寶鑑』에서 “治病先去根”이라는 제목하에 이러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東醫寶鑑』에서 “治病先去根”論을 전체적으로 널리 수용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인다. 먼저, 『東醫寶鑑』 전체 편제에서 볼 때 “治病先去根”論이 주된 주제라는 점이다. 둘째, 『東醫寶鑑』에 설정된 조문 제목이 “治病先去根”論을 위주로 붙여져 있다는 점이다. 셋째, 『東醫寶鑑』 전체의 내용이 “治病先去根”論이 위주라는 점이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東醫寶鑑』 편제를 통해 살펴본 “治病先去根”論.

『東醫寶鑑』은 5篇, 25卷, 87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虛勞門은 虛證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東醫寶鑑』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놀랍다. 南山堂에서 간행한 『原本 東醫寶鑑』을 가지고 산술적으로 따져보아도 전체 787쪽 가운데 14쪽에 불과하다. 이것은 전체의 2%에도 못 미치는 양이다.

『東醫寶鑑』의 구성체계는 內經, 外形, 雜病, 湯液, 針灸의 다섯 편으로 되어있다.

2) 治病之法先去病根然後可用收澁若澁衣然先去垢膩然後可加粉飾也<丹心>○張戴人曰養生與攻病本自不同今人以補劑療病宜乎不效也<綱目>.(『東醫寶鑑·雜病用藥』)

3) 邪之所湊, 其氣必虛.

內景篇은 身形臟腑圖, 身形, 精, 氣, 神,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 五臟六腑, 肝, 心, 脾, 肺, 腎, 膽, 胃, 小腸, 大腸, 膀胱, 三焦, 胞, 蟲, 小便, 大便 등 27개의 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內景篇은 인체 내부에 대한 논의이다. 즉, 精, 氣, 神, 血과 그의 운용산물인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과 五臟六腑 등과 그의 운용산물인 小便, 大便으로 구성되어 있다.

外形篇은 頭, 面, 眼,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頸項, 背, 胸, 乳, 腹, 臍, 腰, 脇, 皮, 肉, 脈, 骨, 手, 足, 毛髮, 前陰, 後陰 등 25개의 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外形篇은 인체 外部에 대한 논의이다.

인체의 內部와 外部의 두 가지가 상호 모순되었을 때 邪氣가 침범하는 것이 風寒暑濕燥火(雜病篇 2,3卷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음)이다. 雜病篇은 內景篇과 外形篇의 상호 모순에 따른 疾病의 發生過程을 論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內傷도 邪氣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湯液篇과 針灸篇은 인체의 內部와 外部의 모순에 의해서 발생한 雜病을 湯液과 針灸로서 몰아내겠다는 의도로 마지막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東醫寶鑑』의 구성체계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邪氣를 제거하는 것이 병의 뿌리를 제거한다는 “治病先去根”論의 논리적 構造를 잘 담고 있다.

雜病篇 卷一에서 審病, 辨證, 診脈, 用藥 다음으로 吐汗下를 치료법의 대명사인 것처럼 뒤에 붙여 놓았다. 『東醫寶鑑』은 치료법의 대원칙으로 吐汗下를 꼽고 있는 것이다.

## 2) 『東醫寶鑑』 條文題目을 통해 살펴본 “治病先去根”論

『東醫寶鑑』의 조문은 각 “門”의 소단락이다. 각각의 조문들은 질병의 원인과 질병을 바라보는 이치, 질병의 기전과 분류, 治法등에 따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도 일관된 방향성을 견지하며 편제 되어있다. 또한 조문 각각의 내용은 당시까지 유명 醫書들에서 인용하고 있으나 조문 제목은 許浚이 달아 놓은 것으로 각 인용내용이 許浚에 의도에 따라 편제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조문제목은 『東醫寶鑑』이 단순히 여러 글을 모아놓은 百科辭典적인 醫書만이 아닌 許浚이 의도와 방향을 갖고 편찬한 책자임을 알 수 있게하므로 『東醫寶鑑』의 白眉라고 할 수 있다.

『東醫寶鑑』의 조문제목 곳곳에서도 “治病先去根”論이 엿보이는 데, 이것은 『東醫寶鑑』이 “治病先去根”論을 주요 관점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선 “治病先去根”論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조문 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內經篇	神門 【癲狂-大下愈狂】， 小便門 【關格證-關格宜吐瀉】，	胞門 【帶下治法-吐下療白帶】 大便門 【痢疾宜下】
外形篇	頭門 【吐法】， 咽喉門 【咽喉急閉宜吐】， 胸門 【心胃痛宜吐】， 胸門 【痞宜吐下】，	頭門 【下法】 胸門 【諸痛不可用補氣藥】 胸門 【心胃痛宜下】 腹門 【腹痛宜通利】
雜病篇	吐門 【春宜吐】， 吐門 【下部脉不見宜吐】， 下門 【秋宜下】， 風門 【風非大汗則不除】， 寒門 【可汗不可汗證】， 內傷門 【內傷飲食宜吐】， 霍亂門 【霍亂吐法】， 黃疸門 【擗鼻退黃法】	吐門 【病在上宜吐】 汗門 【夏宜汗】 風門 【取吐法】 寒門 【傷寒可吐證】 寒門 【可下不可下證】 內傷門 【內傷飲食宜下】 嘔吐門 【嘔吐噎膈反胃宜通大便】

반면 “治病先去根”論에 직접적으로 상반되는 『東醫寶鑑』의 조문제목은 暑門의 【夏暑宜補氣】 하나 뿐이다. 조금 확대해보면 虛勞門의 일부 조문들과 그 외 門들에서 약간의 條文<sup>4)</sup>들이 존재한다.

이렇듯 『東醫寶鑑』은 조문제목에서 “治病先去根”論의 관점이 주된 흐름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들어 腰門의 十種腰痛을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十種腰痛중 【腎虛腰痛】을 제외한 나머지 九種의 腰痛 즉 【痰飲腰痛】，【食積腰痛】，【挫閃腰痛】，【瘀血腰痛】，【風腰痛】，【寒腰痛】，【濕腰痛】，【濕熱腰痛】，【氣腰痛】은 모두 “治病先去根”論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3) 『東醫寶鑑』의 내용면에서 살펴본 “治病先去根”論.

『東醫寶鑑』에서는 雜病篇의 〈審病門〉，〈辨證門〉，〈診脈門〉，〈用藥門〉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이치와 질병의 기전, 그리고 이를 변별하여 진단하는 방법과 治法 및 治方을 설명하고 있다. 이 門들을 통하여 『東醫寶鑑』이 질병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東醫寶鑑』의 생리관과 병리관, 치법관

4) 『東醫寶鑑』에서 “治病先去根”論과 상반되는 暑門의 【夏暑宜補氣】 조문을 제외하고 補法을 기준으로 치병을 논하고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內景篇>에서는 ①精門 【精滑脫屬虛】，②大便門 【虛泄】，③大便門 【虛痢】.

<外形篇>에서는 ④頭門 【虛暈】，⑤腰門 【腎虛腰痛】.

<雜病篇>에서는 ⑥天地運氣 【陰陽之氣升降盈虛】，⑦用藥門 【補瀉相兼】，⑧風門 【賊風虛邪中人】，⑨ 風門 【中風虛症】，⑩咳嗽門 【喘嗽上氣出於腎虛】.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門이다. 이러한 『東醫寶鑑』 〈用藥門〉에서 張從正의 醫論 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攻邪論’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자못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東醫寶鑑』 〈用藥門〉의 39번째 조문인 ‘治病先去根’에서는 張從正의 ‘攻邪’의 醫論을 언급하고 있다. “病을 다스리는 法이 먼저 病의 根源을 除去한 뒤에 收斂하는 藥을 쓰는 法이니 마치 옷을 씻는데 먼저 때를 씻은 뒤에 분을 바르는 法과 같다. (『丹心』) 張載人이 가로되 養生하는 法과 질병을 攻略하는 法이 본래 서로 같지 않은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補劑로써 病을 治療하니 效果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綱目』)” 라고 하였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邪氣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관점이다. 張從正의 ‘攻邪論’과 일치하고 있는 데, 『東醫寶鑑』에서도 이를 주요 논점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治病先去根”論의 내용은 질병의 원인이 邪氣에 있다는 점과 질병의 치료는 邪氣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東醫寶鑑』의 전편에 걸쳐서도 잘 드러나고 있지만 病因·病理觀과 治法·治方論을 다루고 있는 雜病篇의 〈審病門〉, 〈辨證門〉, 〈診脈門〉, 〈用藥門〉을 중심으로 “治病先去根”論을 살펴보겠다.

첫째, 질병의 원인이 邪氣에 있다는 관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辨證門의 【陰陽生病】조문에서는 “『內經』에서 이르기를 ‘대체로 病은 陰이나 陽에서 생긴다. 病이 陽에서 생기는 것은 風, 雨, 寒, 暑에서 생기고, 陰에서 생기는 것은 飮食과 居處를 잘못하였거나, 性생활이나 七情에 傷했을 때 생긴다’고 하였다.”<sup>5)</sup>라 하였는데, 『內經』을 인용하면서 內外의 邪氣에 의해 질병이 發生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辨證門의 【四時生病】조문에서는 “『靈樞』에 ‘겨울에 추위에 傷하면 몸에 熱病이 생기고 봄에 風邪에 傷하면 여름에 飧泄이나 腸澼이 생기고 여름에 더위에 傷하면 가을에 瘧疾이 생기고 가을에 濕에 傷하면 겨울에 咳嗽病이 생긴다’고 써어 있다.”<sup>6)</sup>라하여 계절적인 邪氣가 人身에 머물러 질병을 일으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같은 門의 【百病始生】조문에서는 “『靈樞』에 ‘모든 병은 처음에 다 바람, 비, 찬 것, 더위, 서늘한 것, 습기,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성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써어 있다. 기뻐하거나 성내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五臟이 傷하고 風雨에는 上焦가

5) 內經曰 夫邪之生也 或生於陰 或生於陽 其生於陽者 得之風雨寒暑 其生於陰者 得之飮食居處陰陽喜怒. 『東醫寶鑑·雜病篇·辨證門·陰陽生病』

6) 靈樞曰 冬傷於寒 春生瘧熱 春傷於風 夏生飧泄腸澼 夏傷於暑 秋生瘧瘧 秋傷於濕 冬生咳嗽 『東醫寶鑑·雜病篇·辨證門·四時生病』

傷하고 서늘하거나 습한 기운에는 下焦가 傷한다. 五臟이 傷하면 病이 陰에서 시작되고 서늘하거나 습한 기운이 虛한 틈을 타서 들어오면 病이 下焦에서 시작하고 虛해졌을 때 風雨에 상하면 病이 上焦에서 시작된다.<sup>7)</sup>”라하여 모든 病이 邪氣에 의하여 發生함을 설명하고 있다. 역시 같은 門의 【寒熱傷形氣】 조문에서는 “『內經』에서 이르기를 ‘寒邪에 形이 傷하고 熱에는 氣가 傷한다. 氣가 傷하면 痛症이 생기고 形體가 傷하면 붓는다. 그러므로 먼저 痛症이 있다가 후에 붓는 것은 氣가 傷해서 形體가 傷한 것이고 먼저 붓고 후에 痛症이 있다가 形體가 傷해서 氣가 傷한 것이다’고 하였다. 註解에 ‘氣가 傷하면 熱이 肌肉부분에 맺히기 때문에 아프고 形體가 傷하면 寒邪가 皮膚와 腠로 들어가기 때문에 붓는다. 喜怒가 지나치면 氣가 傷하고 寒邪와 暑邪에는 形體가 傷한다’<sup>8)</sup>고 하였는 데, 形과 氣가 傷하는 것은 邪氣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질병 치료는 邪氣를 제거하는 것에 있다.

用藥門의 【用藥大體】 조문에서는 “『內經』에서 이르기를 ‘病이 생긴 초기에는 침을 놓아서 낮게 하고 病이 盛할 때에는 病이 衰할 때까지 치료해야 한다. 病이 輕하면 흘날리고 重하면 減하고 몸이 衰하면 좋아지게하며 病이 위에 있으면 吐하게 하고 아래에 있으면 이끌어 없어지게 해야 하며 그득하면 瀉下시키고 邪氣가 안에 있으면 형체가 暖에 젖도록 해야 한다. 病이 皮에 있으면 汗을 내어 發散시켜야 하고 급하고 맹렬하면 억눌러서 지켜야 하고 實하면 汗을 내어 瀉下시켜야 한다’고 했다.(『內經』) 。 上焦가 왕성한 病이 낮지 않으면 吐하게 해서 없어지게 하고 下焦가 왕성한 病이 낮지 않으면 瀉下시켜서 없어지게 해야 한다.(王冰)”<sup>9)</sup> 라하여 질병의 치료가 邪氣와의 싸움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用藥門의 【用藥大法】 조문에서는 “ 약을 사용하는 방법은 봄에는 吐하게 하고 여름에는 汗을 내야 하고 가을에는 瀉下를 하게 하고

7) 靈樞曰 夫百病之始生也 皆生風兩寒暑清濕喜怒 喜怒不節則傷藏 風雨則傷上 清濕則傷下 藏傷則病起於陰 清濕襲虛則病起於下 風雨襲虛則病起於上 『東醫寶鑑·雜病篇·辨證門·百病始生』

8) 內經曰 寒傷形 熱傷氣 氣傷痛 形傷腫 故先痛而後腫者 氣傷形也 先腫而後痛者 形傷氣也 註曰 氣傷則熱結於肉分 故痛 形傷則寒薄於皮膚 故腫也 。喜怒傷氣 寒暑傷形 [內經]. 『東醫寶鑑·雜病篇·辨證門·寒熱傷形氣』

9) “內經曰 病之始起也 可刺而已 其盛可待衰而已 故因其輕而揚之 因其重而減之 因其衰而彰之 其高者因而越之 其下者引而竭之 中滿者瀉之 於內其有邪者漬形以爲汗 其在皮者汗而發之 其標悍者按而收之 其實者散而瀉之. (『內經』) 。上盛不已吐而脫之 下盛不已下而奪之 (王冰)” 『東醫寶鑑·雜病篇·用藥門·用藥大體』



겨울에는 따뜻이 하면서 땀을 땀을 떠야 한다. (仲景)<sup>10)</sup>라하여 질병치료에 있어서 邪氣를 몰아내는 吐汗下의 三法이 用藥을 하는 大綱임을 설명하고 있다. 用藥門의 【風熱燥濕寒治法】 조문에서는 “風은 陽에 속하여 잘 돌아다니고 자주 변하며 밖으로부터 들어와 正氣를 울체되게 한다. 그러므로 風을 治療할 때에는 氣를 잘 돌게 하고 表를 발산시키는 약을 많이 쓰는 것이다. 또한 風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있으면 熱이 생기는데 熱은 痰을 생기게 한다. 마땅히 風을 몰아내고 痰을 삭이는 약을 써야 한다. 또한 熱이 지극해지면 風이 생기는데 風은 津液을 마르게 하므로 이런 때에는 熱을 내리고 乾燥한 것을 潤澤하게 해주는 藥을 써야 한다.”<sup>11)</sup>라하여 正氣가 風邪에 울체된 것을 風邪를 除去하는 것을 治療의 要點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用藥門의 【人病不過寒濕熱燥】 조문에서는 “寒과 濕은 陰에 속하고 熱과 燥는 陽에 속하니 사람의 病은 이 두 가지에 불과하다. 약을 잘 쓰는 사람은 苦寒한 藥으로 陽을 泄하고 辛溫한 藥으로 陰을 蠲한다. 病이 낫지 않는 것은 아직 그것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防風通聖散으로 熱燥를 治療하고 生料五積散으로 寒濕을 治療하여 각각 효과를 보았다.”<sup>12)</sup>라고하여 邪氣가 물러나지 않는 것이 질병의 상태로 보고 泄, 散의 방법으로 邪氣를 제거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東醫寶鑑』은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治病先去根”論의 입장을 주요 관점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吐汗下三法

『東醫寶鑑』은 雜病篇 卷一에서 <審病門>, <辨證門>, <診脈門>, <用藥門>을 두어 질병의 원인과 기전, 治法과 治方에 이르는 한의학의 중요한 이론적인 틀을 論하고 있다. 『東醫寶鑑』은 이 門들 다음으로 <汗門>, <吐門>, <下門>을 두고 있는데 이는 “吐汗下三法”을 治療법의 대명사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10) “大法 春宜吐 夏宜汗 秋宜下 冬宜溫及灸 (仲景)” 『東醫寶鑑·雜病篇·用藥門·用藥大法』

11) “風屬陽 善行數變 自外而入以鬱正氣 故治風多行氣開表藥 又風入久變熱 熱能生痰 宜用祛風化痰藥 又熱極生風 風能燥液 宜用清熱潤燥藥 ” 『東醫寶鑑·雜病篇·用藥門·風熱燥濕寒治法』

12) “夫寒濕屬陰 燥熱屬陽 人之爲病不過二者而已 善用藥者 以苦寒而泄其陽 以辛溫而散其陰 病之不愈者未之有也 余嘗以防風通聖散 治熱燥 生料五積散 治寒濕 各得其效也.” 『東醫寶鑑·雜病篇·用藥門·人病不過寒濕熱燥』

『東醫寶鑑』은 吐汗下三法을 다루고 있는 이 門들에서 특히 張從正의 학술 사상을 인용하여 吐汗下三法이 치료방법의 중심임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張從正은 病이 모두 邪氣에 의해 發生하는 것이므로 邪氣가 몸에 침범한 것을 빨리 공격하거나 빨리 없애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上에 있는 邪氣는 吐法, 表에 있는 邪氣는 汗法, 下에 있는 邪氣는 下法을 즉 吐汗下三法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하였다. 吐汗下三法이 앞 장에서 論한 “治病先去根”論의 주된 치료 방편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吐汗下 三法의 내용을 東醫寶鑑의 여러곳에서 볼 수 있다. 『東醫寶鑑』 <用藥門> 【水火分治歌】 조문에서는 “속에 寒熱이 있으면 吐下 시켜야 하고, 겉에 寒熱이 있으면 汗法을 쓴다.”<sup>13)</sup> 라고 하였으며 『東醫寶鑑』 <用藥門> 【標本分治歌】 조문에서는 “風이 火를 좇아 일어나면 汗을 내어야 하고 燥가 濕과 더불어 抗爭하면 下하는 것이 옳은 법이다. 萬病이 火와 濕으로 나뉘는 法이다.”<sup>14)</sup>라 하였다. 이 두 조문은 모두 張從正의 醫論을 인용하고 있다.

## 5. 疝症

『東醫寶鑑』에서 疝症이란 “아랫배에 病이 생겨서 배가 아프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疝이라 하는데 이것은 寒으로 생긴다. 疝症은 寒氣가 몰려서 생기는 것이다.”<sup>15)</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東醫寶鑑』은 疝症의 원인, 기전, 분류, 치법 모두 張從正의 글에 의존하여 정리하고 있다. 疝症의 종류를 七種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증상과 원인 治法을 설명하는 것도 張從正의 글에서 세밀하게 인용하고 있다. 일곱 종류의 疝症중에 ‘瘰疬’만이 <綱目>등에서 인용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張從正의 『儒門事親』에서 원류하는 것을 <綱目>에서 인용하고 이것을 『東醫寶鑑』에서 재인용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sup>16)</sup>

13) “裏熱裏寒宜越竭 表熱表寒宜汗釋” 『東醫寶鑑·雜病篇·用藥門·水火分治歌』

14) “風從火斷汗之宜 燥與濕爭下之可 萬病能將火濕分” 『東醫寶鑑·雜病篇·用藥門·標本分治歌』

15) “內經曰病在小腹腹痛不得大小便病名曰疝得之寒○疝者寒氣結聚之所爲也<內經>” 『東醫寶鑑·前陰門·疝病之因』

16) 인용처가 『綱目』으로 되어있는 『東醫寶鑑』과 『儒門事親』을 비교하면 동일하다. 『儒門事親』에서 인용한 『綱目』의 글을 『東醫寶鑑』이 재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瘰疬]者其狀陰囊大如升斗 不痒不痛者是也 得之於地氣卑濕 故江淮之間多有之 宜以去

이렇듯 『東醫寶鑑』은 산증의 원인과 분류에 따른 治法등을 張從正의 사상에 준하여 정리하고 있다.

## 6. 情志를 다스려 질병을 治療

『東醫寶鑑』은 張從正의 醫論 중에서 情志를 다스려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여섯 곳에서 인용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東醫寶鑑』 內景篇 神門의 【驚悸】 조문에서 임상례로서 ‘常法治驚’을 보면, “어떤 婦人이 밤에 도적을 만나서 크게 놀랐는데 그후부터 소리를 듣기만 해도 놀라 넘어지고 의식을 잃곤 하였다. 醫者가心病으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대인이 보고 말하기를 驚病은 陽證이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다. 恐病은 陰證인데 속으로부터 나와서 된 것이다. 驚病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기고 恐病은 스스로 알면서 생긴다. 膽이란 용감한 것인데 놀라면 膽이 상한다. 환자의 두 손을 잡아 椅子 위에 놓게 하고 바로 그 앞에 책상을 놓은 다음 그 婦人에게 이것을 똑똑히 보라고 하면서 나무망치로 한번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그 부인이 몹시 놀랐다. 조금 있다가 또 치니 좀 덜 놀랐다. 연거푸 네다섯 번을 치니 놀라는 것이 점차 안정되었다. 감탄하면서 묻기를 ‘이것이 무슨 치료법인가’ 戴人이 말하기를 ‘놀란 데는 주하게 해야 한다. 주하게 하는 것이 平常의 법이다. 늘 해보면 반드시 놀라는 일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이날 밤 窓門을 두드려도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깊이 잠들어서 아무 것도 몰랐다. 대개 驚病은 神이 위로 넘치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책상을 치고 내려다보게 한 것은 神을 거두려 한 것이다.”<sup>17)</sup>

濕之劑下之 女子陰戶凸出亦是此類 不可溫之補之 宜以苦藥下之 以苦堅之 <綱目>○癩疔者牽囊腫大如升如斗者是也<綱目>” 『東醫寶鑑·外形篇·前陰門·疔病有七條文』

“癩疔其狀陰囊腫大如升如斗，不痒不痛者也，得之地氣卑濕所生，故江淮之間湫塘之處多感此疾，宜以去濕之藥下之。女子陰戶突出雖亦此類，乃熱則不禁固也，不可便謂虛寒而澀之燥之補之，本名曰癩，宜以苦下之，以苦堅之。” 『儒門事親·卷二·疔本肝經宜通勿塞狀十九』

17) “一婦人 夜值盜劫 大驚 自後聞有響 卽驚倒不省 醫作心病治不效 戴人見之曰 驚者爲陽從外入 恐者爲陰從內出 驚者爲自不知也 恐者爲自知也 膽者敢也 驚怕則膽傷矣 乃執兩手按於交椅上 當前置一几 謂之曰娘子當視此 一木猛擊之 其婦大驚 俟少時又擊之 驚少緩連 擊四五次 然後徐徐驚 定而嘆曰 是何治法 戴人曰 驚者平之 平者常也 平常見之必無驚矣 是夜擊門窓 自昏達曙 熟臥不聞 夫驚者神上越也 從下擊几 使之下視 所以收神也<張子和>” 『東醫寶鑑·內景篇·神門·驚悸-常法治驚』

그 외의 인용 조문들은 『東醫寶鑑·內景篇·神門·五志相勝爲治』, 『東醫寶鑑·內景篇·神門·神病用藥訣』, 『東醫寶鑑·內景篇·夢門·虛煩不睡-思結不睡』, 『東醫寶鑑·內景篇·言語門·笑』, 『東醫寶鑑·外形篇·胸門·七情心痛』 등에서 임상사례로서 기술하고 있다.

『東醫寶鑑』은 여러 곳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하여 보아도 張從正의 情志를 다스려 疾病을 치료하는 독특한 방법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 치료법은 현재까지 계승 발전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임상 영역이다.

## 7. 기타 張從正 인용 醫論.

### 1) 瀉血法으로 질병을 治療

현재 임상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治法이다.

『東醫寶鑑』에서는 眼門의 【眼有內外眚】條文, 口舌門의 【舌腫】條文, 諸瘡門의 【疥癬-針灸法】條文에서 張從正의 瀉血法을 직접인용하며 설명하고 있다.

『東醫寶鑑』은 이론적 근거를 잘 갖춘 張從正의 사혈법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특히 眼門의 【眼有內外眚】條文에서는 사혈법의 이론적인 배경을 잘 기술하고 있는데, 六經의 氣血多少에 따라 瀉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多血한 太陽부위(눈의 內眚, 눈의 上綱)와 陽明부위(눈의 下綱)는 사혈하여야 좋으며, 少血한 少陽부위(눈의 銳眚)는 출혈하면 더욱 악화된다고 보았다.<sup>18)</sup> 『東醫寶鑑』의 사혈요법은 張從正의 醫論을 지침으로서 사혈법의 품격을 높이게 되었다.

### 2) 병을 인식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運氣를 기본으로 하였다.

『東醫寶鑑·外形篇·足門·痿病之因』에서 “痿病은 다 5월, 6월, 7월에 시작된다. 午月은 少陰君火가 작용하는 시기이고 未月은 濕土와 庚金이 火에 굴복하는 시기이며 申月은 少陽相火의 시기이다. 그러므로 痿病의 脉은 浮大하다.<子和>”<sup>19)</sup> 運氣가 인체의 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東醫寶鑑·雜病篇·用藥門·標

18) “目之內眚 太陽經之所起 血多氣少 目之銳眚 少陽經也 血少氣多 目之上綱 太陽經也 亦血多氣少 目之下綱 陽明經也 血氣俱多 此三經 俱會于目 惟足厥陰經 連於目系而已 故血太過者 太陽陽明之實也 血不及者 厥陰之虛也 故出血者 宜太陽陽明蓋此二經 血多故也 少陽一經 不宜出血 血少故也 刺太陽陽明 出血則目愈明 刺少陽出血則目愈昏矣 <子和>” 『東醫寶鑑·外形篇·眼門·眼有內外眚』의 내용을 요약하였습.

19) “痿之作也 皆五月六月七月之時 午者少陰君火之位 未者濕土庚金伏火之地 申者少陽相火之分 故病痿之人 其脉浮大 <子和>” 『東醫寶鑑·外形篇·足門·痿病之因』

本分治歌』<sup>20)</sup>에서는 六經이 六氣에 귀속되는 것에 따라 風이 火를 좇아 일어나면 汗法을 해야하고 燥가 濕과 더불어 抗爭하면 下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東醫寶鑑』은 雜病篇에서 病을 辨別하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天地運氣>門을 제일 앞에 두어 ‘運氣’가 病을 살피는 중요한 지위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東醫寶鑑은 丹溪心法の 글 인용하여 吐汗下三法에만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단계의 글을 인용하여 “寒證과 虛證이 겹쳤거나 血氣가 결핍된 사람을 치료할 때에는 痰을 치료하면서 반드시 補를 겸해야 한다. 그러므로 子和의 三法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sup>21)</sup> 라고 張從正의 三法에 대한 경계도 하고 있다. 病을 치료함에 있어서 病인과 病정에 근거하고 四診을 參參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20) 標本分治歌의 『東醫寶鑑』상의 誤記.

① 『東醫寶鑑·雜病篇·用藥門·標本分治歌』

歌曰 少陽從本爲相火 太陰從中濕土坐 厥陰從中火是家 陽明從中濕是我 太陽少陰標本從 陰陽二氣相包裹 風從火斷汗之宜 燥與濕爭下之可 萬病能將火濕分 掣開軒岐無縫鎖 <子和>

② 『素問·至眞要大論篇 第七十四』

帝曰 願卒聞之. 岐伯曰 少陽太陰從本, 少陰太陽從本從標, 陽明厥陰不從標本, 從乎中也. 故從本者化生於本, 從標本者有標本之化, 從中者以中氣爲化也.

③ 『儒門事親卷十四』

少陽從本爲相火, 太陰從本濕上坐, 厥陰從中火是家, 陽明從中濕是我, 太陽少陰標本從, 陰陽二氣相包裹, 風從火斷汗之宜, 燥與濕兼下之可, 萬病能將火濕分, 徹開軒岐無縫鎖.

④ 『醫學入門』

少陽從本爲相火 太陰從中濕土坐 厥陰從中火是家 陽明從中濕是我 太陽少陰標本從 陰陽二氣相包裹 風從火斷汗之宜 燥與濕兼下之可 萬病能將火濕分 掣開軒岐無縫鎖

②의 『素問』에서 찾아본 것과 같이 太陰은 從本한다. ③의 張從正 글도 『素問』에 합당하나, 『入門』의 글인 ‘太陰 從中’이 誤記인 듯 하다. 許浚은 『入門』의 글을 인용하면서 張從正의 『儒門事親』에 이 문구가 선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張從正을 인용자로 하였으나 『入門』의 誤記를 그대로 옮겨 쓴 것으로 보인다.

21) “然亦有挾寒挾虛之證 又有血氣虧乏之人 理宜導去痰滯又當補接兼行 又難拘於子和之三法也.” 『東醫寶鑑·內景篇·痰飲門·痰飲治法』

이치이다.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강조한 것은 張從正의 三法이 峻烈한 치법이므로 萬全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8. 결론.

이상으로 『東醫寶鑑』에 인용된 張從正의 醫論을 研究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東醫寶鑑』은 張從正의 醫論을 62개 조문에 걸쳐 인용하고 있다. (「子和」가 인용된 조문 59개, 「儒門事親」이 인용된 조문 1개, 「戴人」이 인용된 조문 2개, 이를 합산하면 62개의 조문이 된다.)
- 2) 『東醫寶鑑』은 張從正의 중심 학술사상인 “治病先去根”(病을 다스리는 法은 먼저 病의 根源을 除去한다.)의 관점에 입각하여 전체편제를 구성하였으며, 조문제목을 달고, 내용을 채워넣고 있다.
- 3) “治病先去根”論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吐汗下 三法을 골간으로 하고 있으며, 『東醫寶鑑』 또한 吐汗下 三法을 치료방법의 대명사로 여기고 있다.
- 4) 『東醫寶鑑』은 情志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非藥物的인 요법을 시행한 張從正의 학술사상을 잘 담고 있다.
- 5) 『東醫寶鑑』은 <運氣>를 病因과 病理, 治法을 찾는 우두머리에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張從正의 인용 醫論과도 상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6) 『東醫寶鑑』에 인용된 張從正의 醫論을 연구한 결과, 張從正 의학 사상은 『東醫寶鑑』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 < 參考 文獻 >

- 1) 許 浚. 『原本 東醫寶鑑』, 남산당, 서울, 1991.
- 2) 張從正. 『儒門事親』,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98.
- 3) 李 梴. 『醫學入門』, 고려의학사, 서울, 1995.
- 4) 王冰註. 『黃帝內經』, 서울, 大星出版社影印, 1985
- 5) 홍원식.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7
- 6) 張從正. 『子和醫集』,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94
- 7) 맹웅재·김남일 등,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서울, 2001